

‘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신용대출(기타기관 등) 받은 가구수 비중(7.9%) 관련 알려드립니다.

< 언론 보도내용 >

- 「신용대출 받은 가구 7.9% 대부업체도 이용.. 4년만에 증가세」(‘23.12.10., 연합뉴스 등 다수) 내용의 기사에서
 - “‘기타기관 등’에서 돈을 빌린 가구주 비중은 7.9%로, 지난 해(6.9%) 보다 1% 포인트 상승”이라고 보도

< 통계청 설명 >

- 위 기사에서 언급된 비중은 가구주(가구수) 비중이 아니라 전체 신용대출 보유액 중 대부업체 등 기타기관에서 대출받은 신용대출 보유액 비중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향후 통계 이용자의 혼란 예방을 위해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되는 관련 통계표 명칭 등을 보완할 예정입니다.

담당 부서	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	책임자	과 장	박은영 (042-481-2458)
		담당자	사무관	홍상혁 (042-481-2360)